

한국교회와 역사

속간 제3호(2026.8-9)

발간사

비관론적인 낙관주의 / 이상규

신약본문 바로 읽기3

요한이서의 수신자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클렉테 퀴리아, ἐκλεκτὴ κυρία)'는 교회인가, 인명(人名)인가? / 조규통 • 1

구약본문 바로 읽기3

전도서의 '헛되다' 라는 단어의 바른 이해 / 박우택 • 6

본문과 해석3

“피 남편”(출 4:24-26)에 관하여 / 서상근 • 11

초기 기독교 산책3

초대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 신민석 • 17

역사와 신앙3

카타콤과 기독교 신앙의 상징3 / 이상규 • 22

거룩한 삶을 향하여3

경건을 위해 날마다 훈련하라! / 박관수 • 32

변화하는 세계의 길목에서2

사방에서 불어올 바람, 사방으로 흩어질 엘람(이란) / 최요셉 • 36

사람과 사상3

전 「매경닷컴」 윤영걸 대표 / 신재철 • 40

비관론적인 낙관주의



이 상 규

역사를 가르치다보니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우리 사회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조망할 것인가 하는 등의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필자가 답하기에는 과분한 질문이지만 지난 역사를 굽어볼 때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는 비관적이지만,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것이라고 대답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비관론적인 낙관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도 필자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손봉호 교수님께 배운 바였다. 그런데 최근 미국 칼빈신학교의 로날드 핀스트라(Ronald Feenstra)의 글을 읽던 중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또한 비관론적인 낙관주의자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지난 역사에서 인간이 남긴 자취를 보면 잠정적으로(provisionally) 비관론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궁극적으로(ultimately)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몽주의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가졌던, 인간 이성이나 도덕성이 발전하면 보다 완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순진한 낙관주의(native optimism)라고 비판했다. 그는 죄성을 지닌 인간 본성 때문에 악이나 불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초월적 신앙때문에 낙관주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니버의 사상에는 잠정적인 비관주의와 궁극적인 낙관주의를 역설적인 긴장속에서 하나로 엮으려는 시도가 보인다. 오늘 우리 사회의 부정, 불의, 도덕적 해이, 윤리적 탈선, 사법질서의 파괴, 자유민주적 가치의 후퇴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앞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바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번 제3호를 위해 옥고를 주신 필자들에게 감사한다.

요한이서의 수신자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클렉테 퀴리아, ἐκλεκτῇ κυρίᾳ)’ 교회인가, 인명(人名)인가?

조 규 통 (함안 그루터기교회 담임목사)

신약성경 중 가장 짧은 분량에 속하는 요한이서는, 그 수신자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ἐκλεκτῇ κυρίᾳ καὶ τοῖς τέκνοις αὐτῆς)”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1절).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 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렉테 퀴리아(ἐκλεκτῇ κυρίᾳ)’ 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지역 교회’ 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라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이름 곧 인명으로 이해하는 견해다. 지지하다시피 교회라고 보는 의견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인명으로 보는 견해는 지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용어가 교회에 대한 명칭이든, 인명이든 결국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점이다. 다만 필자가 이 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용어를 인명으로 이해할 때 요한이서 자체를 현장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점도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글은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요한이서를 단순히 교리적으로나 일반적 교훈의 전달로 읽기보다, 로마인들로부터의 오해와 편견과 비난, 유대인들로부터의 모종의 단절,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거짓 교사의 발현이라는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나누며, 계명을 행했던 ‘살아있는 교회’ 로 조망하도록 안내하고 싶은 것에 있다. 그리고 이 글은 물의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임을 밝힌다.

1. ‘에클렉테 퀴리아(ἐκλεκτῇ κυρίᾳ)’ 를 교회로 볼 때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는 ‘에클렉테 퀴리아’ 를 개별 인물이 아

닌 요한이 사역했던 지역의 교회로 본다. 영어 성경은 주로 ‘to the chosen lady’ 혹은 ‘to the elect lady’ 로 번역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신부’ 혹은 ‘딸 시온’ 으로 묘사한 전통이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엡5:25~32; 계21:2 등)을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주석도 이 해석을 택한다. 곧 요한이 순회하며 돌아봤던 지역 교회를 의인화한 표현으로 이해한다. 존 스톱(John R. W. Stott, 1921~2011), 웨스트콧(B. F. Westcott, 1825~1901), 브루크(A. E. Brooke, 1863~1939), 브루스(F. F. Bruce, 1910~1990), 도드(C. H. Dodd, 1884~1973) 등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본문 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신 내에서 수신자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단수형과 복수형을 오가며 사용된다는 점이다(예: 6절, 8절, 10절, 12절). 이는 서신이 단일한 개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수로 구성된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서신 말미(13절)의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표현이다. 이를 교회 대 교회의 문안으로 해석할 경우, 발신자인 요한의 현재 거주하는 지역 교회(자매)의 성도들(자녀들)이 수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문맥이 형성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요한이서는 요한 공동체 내의 특정 지역 교회 전체를 향해 이단에 대한 경계와 진리 수호를 촉구하는 공적 서신으로 분류된다. 셋째, 초기 기독교의 문헌에서 교회를 신적 권위를 가진 여성 인격체로 사용한 예도 있었다. 헤르마스의 『목자』 환상 1, 2, 3권에서 헤르마스의 눈앞에 나타난 노파를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부인(Kυρία, χαῖρε)” 라고 하며 ‘부인’ 이란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 여인을 시빌라(여자 무당, Σίβυλλαν)로 알았지만, 곧 매우 준수한 젊은이가 계시로 알려준 것은, “그녀는 교회다(Ἡ Ἐκκλησία, φησίν.)” 라고 답변이었다.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된 교회의 원형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진 객체로 묘사된 용어가 ‘부인(Kυρία)’ 이었다.¹⁾

다만, 요한의 편지 외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ἐκλεκτὴ κυρία)’ 라는 전체

1) https://www.ccel.org/l/lake/fathers/shepherd_a.htm 헤르마스의 『목자』 (철곡: 분도, 2002), 98-113. 참고로 ‘부인’ 을 교회로 표현한 것은 헤르메스뿐 아니라 키프리아누스(Cyprianus, 200?~258)와 터툴리아누스(Tertullianus, 155~240) 등도 마찬가지였다. 라틴 교부는 헬라어 ‘κυρία’ 대신 라틴어인 ‘Mater’ 를 사용하여 교회를 표현했다.

용어가 교회를 지칭하는 관용적 호칭으로 쓰인 다른 예가 보이지 않는다.

2. ‘에클렉테(ἐκλεκτή)’가 인명인가?

두 번째 접근 방식은 형용사인 ‘에클렉테(택하심을 받은)’를 고유 명사로 간주하여, 본 서신이 ‘에클렉테 부인(Εκλεκτῇ κυρίᾳ)’이라는 실존 인물에게 띄워진 편지로 이해한 번역이다. 일부 영문 번역은 ‘to the lady Elect’ 등 실존 인물로 번역했다.²⁾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요한이서를, 바벨론에 거주하는 ‘에클렉테’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보낸 것이라고 기록했다.³⁾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실제 클레멘트는 두 견해를 다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해석은 본 편지의 13절에(ἀσπάζεται σε τὰ τέκνα τῆς ἀδελφῆς σου τῆς ἐκλεκτῆς), “택하심을 받은(에클렉테) 네 자매”라는 구절을 설명하는 데 논리적, 문법적 난점을 지닌다. 에클렉테가 고유 명사일 경우, 수신자와 그녀의 육신적 자매가 동일한 이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당시의 명명 관습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

3. ‘퀴리아(κυρία)’를 인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접근 방식은 ‘퀴리아’를 고유 명사로 파악하여 ‘택하심을 받은 퀴리아(ἐκλεκτῇ Κυρίᾳ)’라는 특정 여성에게 발송된 서신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택하심을 받은 퀴리아에게’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형태론적으로 ‘퀴리아(κυρία)’는 헬라어 ‘퀴리오스(κύριος)’의 여성형 명사로서

2) Douay-Rheims Bible, Catholic Public Domain Version, Aramaic Bible in Plain English, Mace New Testament 등은 to the lady Elect, to the Elect Lady, to The Elect lady, to the lady ECLECTA로 각각 번역했다.

3) 참고로, 이미 소실된 클레멘트의 『개요(Hypotyposes)』라는 책은, 6세기 카시오도루스(Cassiodorus)의 요청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한 『공동서신주해(Adumbrationes in Epistolas Canonicas)』의 요한이서 주석에 클레멘트의 요한이서 수신자를 밝혔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Secunda Iohannis epistola, quae ad virgines scripta est, simplicissima est, Scripta vero est ad quandam Babyloniam, “Eclectam” nomine, significat autem electionem ecclesiae sanctae, 이 글을 살펴보면, 사실 클레멘트는 1차 수신자는 에클렉테 부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본질적인 수신자는 결국 교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주인(Lady)’이라는 일반 명사로 쓰이지만, 동시에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고유 이름으로도 심심치 않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관점은 13절과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란 문장은 퀴리아의 여자 형제와 퀴리아의 조카들로 이해할 수 있고, 이들은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역에 충성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때, 퀴리아는 요한 공동체 내부에서 가정교회를 제공하고 이끄는 유력한 여성 지도자 혹은 후원자(Patron)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일부 유력한 여성들이 자신의 소유로 섬겼던 것처럼, 이 여인 역시 자신의 가옥을 교회 모임의 장소, 즉 가정교회(house church)로 제공했을 것으로 타당성을 지닌다. 실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소유주인 마리아(행12:12), 빌립보의 루디아(행16:15), 브리스길라 부부(행18) 등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퀴리아가 여성이긴 하지만, 가정교회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를 집에 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요1:10). 따라서 요한은 이 실존하는 여성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녀의 집에 모이는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단속하고, 순회하는 거짓 교사들을 영접하지 말 것을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서 당부하는 편지를 쓴 것이다.

4. 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클렉테 퀴리아’를 교회의 의인화로 해석하는 전통적인 관점은 문맥상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본 글을 통해 필자는 요한이서의 수신자를 ‘퀴리아’라는 실존 인물로 보고 나아가 그녀가 책임지고 있던 가정교회(House Church)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안해 본 것이다.

수신자를 구체적인 실존 인물과 그녀가 섬기는 개별 가정교회로 상정할 때, 요한이서에 담긴 권면은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나 일반적 교훈을 넘어, 1세기 말 교회가 처했던 역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으로 읽게 된다. 당시 요한이 목양했던 교회들은 다중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첫째, 로마인들로부터의 오해와 편견에 노출되어 있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로 인정받던 시기를 지나 독립된 종교 집단으로 분리되면서, 이들의 은밀한 모임은 로마 사회 내에서 불법적인 것으로 오인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했다. 둘째, 지역 사회 내 유대인 커뮤니티와의 단절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출교 조치에서 확인되듯,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자들은 회당이라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배제된 채 가정 단위의 모임으로 결속해야만 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위협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거짓 교사들의 분열 조장 행위였다. 이것은 사실 요한일서를 기록한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⁴⁾ 이것은 바울의 염려가 그대로 나타난 예가 되었다. 공교롭게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행20:30).” 라고 말했다. 그런데 약 3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정확히 그 에베소를 위시한 아시아에서 그런 부류들은 실제 나타났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끌어 내고자 기독교적 오류(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함)를 전파하는 자들이었고, 교회 교사의 형태로 가정교회들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은 퀴리아와 그의 가정 교회에, “진리를 행하고(walking in truth), 서로 사랑하며, 계명을 행할 것” 을 요구한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에클렉테 퀴리아’ 를 실존하는 여성 지도자이자 가정교회의 대표자로 이해하는 방식은, 요한이서를 로마의 압박, 유대인과의 단절,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라는 1세기 후반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분석하게 해 준다. 이러한 시각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와 교리를 수호하는 동시에 공동체 내부의 결속(사랑)을 유지해 나갔는지를 실제적인 한 모델을 목도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

4) 참고로, 요한일서를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에 앞서 보낸 ‘이단 경계’의 목적을 지닌 전체 교회를 향한 서신으로 이해하는 주석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의 수신자는, 요한일서를 이미 읽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도서의 ‘헛되다’ 라는 단어의 바른 이해

박 우 택 (전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어떤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 hebel)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기준으로 전도서에서 모두 38번 나오고, 개역개정판 기준으로 ‘헛된’, ‘헛되어’, ‘허무한’, ‘헛됨’ 등을 포함해 38번 나온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86번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다. 한 본문에서 현저하게 반복되는 단어나 어근을 주도어(leitwort)라고 한다. 성경에서 이 주도어는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문학적 장치다. 전도서에는 이 외에도 주제를 표현하는 주도어 가운데 세상의 삶을 표현하는 ‘해 아래’가 29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은 7번, 인생의 선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6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은 5번, 그리고 ‘헛되다’라는 의미의 은유와 직유로 쓰인 ‘바람’이 10번 나온다. 그렇다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전도서의 중심 주제를 전달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뿐만 아니라 전도서의 처음과 끝인 1:2과 12:8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수미쌍관법(inclusio)을 이루고 있다. 이 역시 전도서의 중심 주제가 ‘헛되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구약성경에서 저자들은 ‘헛되다’라는 단어인 ‘헤벨’ (hebel)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전도서 외의 문맥에서 시편 62:9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라는 말씀에 나오는 ‘입

김' (breath)이 '헤벨' 이다. 이와 유사하게 잠언 21:16에는 이 단어를 '안개' (mist)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헤벨' 은 '일시적임' , '덧없음' 등의 뜻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헛된 것' , 또는 '허무한 것'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신 32:21; 욥 2:9; 슥 10:2). 그러나 전도서에서 저자가 쓴 '헤벨' 을 개역개정판이나 권위있는 영어 번역성경에 문맥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동일하게 번역했다. 개역개정판은 '헛되다' 로, NIV는 일부분만 '공허' , '허무' 라는 뜻인 vanity로 번역했으나 대부분 '무의미하다' 라는 뜻인 meaningless라고 번역했고, NASB는 일부분만 '무익하다' 라는 뜻인 futile로 번역하고 대부분 vanity로 번역했다.

그러면 이러한 번역이 적절한가? 개역개정판을 기준으로 '헛되다' 라고 번역한 부분을 살펴보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넓은 의미로 전도서 1:14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했다. 예를 들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전 2:3), 사업을 하는 것(전 2:4),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을 파는 것(전 2:6),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전 6:9) 등은 이 세상의 삶의 일부인데 정말 무의미하고 헛된 일인가? 또 전도서 8:14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다. 이것을 '헛되다' 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전달되는가? 그렇지 않다.

더글러스 밀러(Douglas B. Miller)는 전도서에서 '헛되다' 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 보면 '허무함' (vapor), '무익함' (futile), '공허' (empty), '아무것도 아님' (nothing), '부조화' (incongruous), '일시적임' (transitory), '현혹시킴' (illusive), '중요하지 않음' (insignificant), '헛됨' (vain), '불가해함' (incomprehensible) 등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저자가 '헛되다' 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러한 폭넓은 개념을 담은 상징이나 수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클 폭스(Michael V. Fox)는 이 단어의 의미를 폭넓게 논의하면서 한 단어로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다 담을 수 없어도 '부조리', '불합리' (absurd, absurdity)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리고 전도서의 의미를 알베르 까뮈(Albert Camus)가 그의 고전적인 책인 『시

지프 신화』(Le Mythe de Sisyphe)에서 정의한 ‘부조리’에 가장 가깝다고 했다. 부조리는 논리와 이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과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까뮈는 부조리를 ‘절연’이라는 표현을 썼다. 부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간격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보편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이 믿음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인다. 열심히 일해도 열매는 보장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전도서의 ‘헛되다’를 ‘부조리하다’라고 바꾸면 의미가 잘 통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전도서 8:14에 […]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 자리에 ‘부조리한’과 ‘부조리하도다’를 넣어서 읽어보면 의미가 잘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

전도서에서 저자가 쓴 ‘헤벨’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서들은 왜 동일한 단어를 썼는가? 개역개정판은 ‘헛되다’, NIV는 ‘meaningless’, NASB는 ‘vanity’로 동일하게 번역했다. 이것은 성경의 수사적 표현 가운데 하나로 ‘신학적 모호함’(theological ambiguity)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는 성경 본문이 대부분 명확한 답을 알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여운이나 여백을 의도적으로 남겨 의미를 다양하게 적용해 보게 하려는 것이다. 본문이 가진 여러 의미와 여운 덕분에 동일한 구절이라도 개인이나 공동체가 각기 다른 깊이와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염세적이며, 허무적이고, 회의적이며, 냉소적이며 부정적인 표현을 종종 보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

로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난 불공평과 불합리의 문제다(전 2:21; 4:4; 6:2; 7:14-15; 8:11 등).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로 수고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가 그 몫을 차지한다(전 2:21).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을 행하였는데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전 7:15).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큰 혼란을 준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질서가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을 발견했다(전 3:16; 4:1-3; 5:8-9; 7:29).

그러면 전도자는 헛되거나 무의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부조리하게 보이는 일들을 나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세상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까뮈도 그의 저서 『시지프 신화』에서 삶의 부조리를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고 오직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중요한 관심사는 부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며 세 가지 단계로 제시했다. 그것은 반항, 자유, 열정이다. 부조리한 세상의 질서가 마치 시지푸스(Sisyphus)가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끊임없이 굴러 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다시 굴러 올리는 고통이 반복되어도 열정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자는 성도의 삶도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가? 아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사건의 상황을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성경에 잠언, 욥기, 전도서는 지혜서로 이 지혜를 보여준다. 잠언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질서 세계에서의 지혜 지혜롭게 사는 방법, 욥기는 욥처럼 감추어진 질서 세계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갈등하고 아플 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일이다. 그러나 전도서의 지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경외하는 일이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질서 세계에서 때로는 무의미하고, 때로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일이 단순하고 막연하게 보여도 이것을 참된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헛되게 보이기도 하고, 부조리하게 보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

고, 선악 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전 3:17; 9:1; 11:9; 12:14 등)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맺었다(전 12:13-14). 이것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다.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셨고(고후 5:17),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 전도서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되어 어떤 일은 무의미하게 보이고, 어떤 일은 부조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참된 지혜인 것을 보여준다.

“피 남편”(출 4:24-26)에 관하여

서 상 근 (부산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1. 들어가는 말

모세는 바로의 영향력을 피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40년간 머물렀고, 어느날 호렙산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다. 그런데 노중의 한 숙소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의 가족을 대적하시는 모습이 출 4:24-26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삶의 터전까지 버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의 가족을 하나님이 직접 공격하시는 모순적인 상황이 충격적임에도 그 이유에 대한 납득할만 한 설명 없이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아론을 만나는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버린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을 공격하셨는지, 왜 원문에는 없는 “모세”라는 이름을 번역본에서는 삽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모세의 사명 이야기 맥락에 하나님과 십보라의 갈등 이야기가 끼어 있는지 등에 본문은 답하지 않는다. 내용에 관한 의문들 외에 문법적으로 풀어야 할 모호함도 있다. 예를 들어 본문에 포함된 네 번의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him)와 두 번의 2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you)를 모세, 십보라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가운데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성경에서 오직 본문에만 나오는 “피 남편”(פִּי־נָתָן, ḥāṭan dāmîm)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이번 글에서 이 여러 의문들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이다. 대신 본문에서 십보라가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확정적 사실을 바탕으로, 십보라가 어떤 맥락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피 남편”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

지를 정리하고, 이와 함께 문맥의 흐름 가운데 본문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본문이 주는 의도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2. 십보라의 행동

본문에서 십보라의 행동이 나오는 25절을 주요 분리 액센트 기준으로 펼쳐보면 다음과 같다.

לְרַגְלֵי	וַתֵּן	בְּנָהּ	וַתִּכְרֹת אֶת־עֶרְלַת	צָר	צִפְרָהּ	וַתָּקֶחַ	A
그의 발에	당게 했다	아들의	포피를 잘랐다	그리고	돌을	십보라가 취했다	
	לִי:	אַתָּה	חֲתוּן־דָּמִים	כִּי		וַתֹּאמֶר	S
	내게	당신은	피남편(입니다)	참으로		(그녀가) 말했다	

A(아트나)에서는 십보라의 행동을 기술한다. 날카로운 돌을 취해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 그것을 그의 발에 갖다 뒀다. 그리고 십보라는 S(셀룩)에서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말을 추가한다. 십보라의 말에서 두 가지 해석적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1) 우선, 접속사 **כִּי**의 해석에 따라 ‘왜냐하면 내게 당신이 **חֲתוּן־דָּמִים**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참으로 내게 당신이 **חֲתוּן־דָּמִים**입니다’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전후에 이 문장과 인과성으로 연결되는 문장이 없기에 여기서는 강조의 **כִּי**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십보라가 하나님께 답변하는 순간에 무언가 부정적인 감정에 차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탈굴(Targum Pseudo-Jonathan)은 당시 십보라와 모세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십보라가 하나님을 향해 반항적이거나 불만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기도 한다.¹⁾

2) 또한 하나님의 공격적인 압박으로 보이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들의 포피를 자른 후에 이 말을 했다는 점에서 ‘지시-수행-보고’라는 수직적 업무 소통 패턴²⁾으로 대입해 볼 수 있다. 즉 ‘자(보세요) 주께서 지시하신 것을

1) 미디안의 이방 신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영향으로 십보라가 모세의 첫 아들 게르솜이 할례 받는 것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2) 조직커뮤니케이션 이론(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heory)의 하향식(Up-down) 소통 패턴의 대표적인 구조이다.

제가 다 했습니다’ 라는 화용적(Pragmatics) 의미로 읽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제 남편(아들)을 놓아주세요’ 라는 발화수반행동(Illocutionary Act)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³⁾

3) 십보라의 행동과 관련되어 관찰의 범위를 확대하면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할 수 있다. 십보라가 처음에는 아들과 함께 모세를 따라 미디안을 출발했다. 그런데 본문 외에는 성경에 십보라의 언행에 관한 기록이 없는 상태로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출애굽한 지 적어도 두 달 반(출 16:1)이 지난 후에 이드로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왔다(출 18:1-5)⁴⁾고 성경이 기록한다. 이 사실로 보아 오늘 본문 이후에 십보라가 남편과의 동행을 포기할만 한 중대한 일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드로가 모세의 성공적인 출애굽 상황을 확인한 후(18:1)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점도 같이 생각한다면 십보라의 귀향은 자신이나 아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염려, 혹은 하나님이나 남편 모세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피 남편” (נִשְׁתָּהּ)이라는 용어와 근동의 문화적 이해

1) נִשְׁתָּהּ(hātān)

셈족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 가운데 히브리어 נִשְׁתָּהּ에 상응하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혈연 공동체에 입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우선 남성 중심 사회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딸과 결혼하고 자신이 속한 혈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נִשְׁתָּהּ이라 불렀고 이 경우 “사위”라는 개념이 된다.⁵⁾ 다른 한 가지는 남자 아이가 할례를 통해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 받게 되었을 때에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 비록 본문 보다는 후대이기

3) 화용론은 소통 상황에서 발화의 문맥적 의미가 되고, 발화수반 행동은 화행론(Speech Act Theory) 중 발화자가 청자에게 바라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4) 개역개정본은 “데리고 왔으니”로 번역했지만, 18:1-5의 기사를 원문으로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을 듣고(1절) 2-4절에서 십보라와 두 아들을 챙긴(נָטָה, to take)후에 5절에서 모세에게로 간 것(וָיָא, to come)로 구분한다.

5) 구약 성경에서 נִשְׁתָּהּ는 20회 사용되는데, ‘사위’로 10회(창 19:12, 14(2회); 삿 15:6, 19:5; 삼상 18:18, 22:14; 왕하 8:27; 느 6:18, 13:28), 타인의 남편을 지칭하는 ‘신랑’으로 8회(시 19:5; 사 61:10, 62:5, 렬 7:34, 16:9, 25:10, 33:10; 욥 2:16)로 번역되었고, 본문에서만 십보라가 자신의 남편(혹은 아들)을 향해 두 번 사용해 다른 번역들과 차이를 보인다.

는 하지만 히브리어와 같은 셈어 계통인 아랍어에서 ḥatana는 이 단어가 ‘할례를 행하다’와 함께 ‘결혼한다’라는 의미도 가진다는 점도 생각해볼 만하다.

2) חָטַן דָּמִימִין(hāṭan dāmīm)

본문에서는 חָטַן을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들’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다. 이는 ‘비중의 복수’로 볼 수 있고, 십보라가 개인적인 의도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할례와 관련된 의식적인 전문 용어일 가능성을 높인다. 26절에서 나레이터가 חָטַן דָּמִימִין이라는 용어에 대해 ‘할례’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런 추측을 지지한다. 이는 본문의 독자들이 할례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חָטַן דָּמִימִין이라는 용어를 할례를 연관시켜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할례와 관련되는 표현이지만 독자들이 속한 문화에서는 생소한 미디안 할례와 관련된 의식적 용어, 혹은 일종의 ‘전문 용어’라는 말이 가능하다.

할례는 고대 근동에서 흔히 행해졌던 풍습이었으나⁶⁾ 민족과 지역에 따라 맥락의 차이가 있었다. 애굽에서는 사제들의 정결의식에 포피를 부분적으로 잘라 피를 내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었다. 한편 미디안 지역에 거주한 아랍인들이 이슬람화 되기 전에는 결혼 직전의 청소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관습이 있었다.⁷⁾ 여기서 남자 아이가 성년식을 통해 성인으로 인정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할례와 결혼의 모티브는 연결성을 가진다. 조금 다른 예가 될 수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 하몰의 아들에게 디나와의 결혼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장면에서도 할례와 결혼의 소재가 함께 등장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명령을 주신(창 17장) 때를 제외하고, 이삭부터는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다(창 21:4)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할례가 근동의 성년식 풍습과 구별되어 언약 백성의 증

6) 예를 들어 6왕조 테티 2세(Teti, c. 2345-2323 B.C.) 시대의 재상 중 하나였던 Ankhmahor의 무덤 벽에는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부조되어 있고, 룩소르 신전 내에는 18왕조의 아멘호텟 3세(c. 1360 B.C.) 시대에 제작된 할례 부조가 남아 있다. 아나톨리아 남부 Tell al-Judeideh에서는 이보다 앞선 3000-2900년 B.C. 경 제작된 나체의 청동 남성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포피가 제거된 상태로 묘사되어 있었다.

7) William H.C. Propp, Exodus 1-18, 281. 비록 이 기록이 모세 시대를 상정하지는 않지만, 고대에는 별다른 계기가 없는 한 사회적 관습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로 본문 이해에 참고할 수 있다.

표로 기능하게 되었다.

4. 문맥의 흐름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내용을 다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사명을 주신다

(3:4-4:17)

모세가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허락 받는다(4:18)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모세를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신다(4:19)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한다(4:20)

하나님은 노중에 모세에게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다(4:21-23)

모세의 가족이 위기를 넘긴다(4:24-26)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가 만나게 하신다(4:27-28)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한 흐름을 가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모세에게 나타나 사명을 주시고 자질이 없다고 주저하는 모세의 문제를 해결하시며(3:4-4-17), 모세의 마음에 부담이 될만한 문제가 사라졌음을 알리신다(4:19). 여기까지의 내용은 모세의 반발을 해결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4-26에서 모세 가정의 비할레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 이는 십보라의 반발을 해결하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가정의 반발과 부적합성을 해결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5. 나가는 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지만, 앞에서 짧게 살펴본 내용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본문의 **מִי־אֶתְּמַרְתֶּם**이라는 용어는 출애굽기의 독자인 이스라엘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낯선 풍습과 관련되어 보인다. 아마도 할레와 관련된 미디안 지역의 관용구로 볼 수 있다.

- 2) 본문에서 십보라는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갈등은 남편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가는데 방해로 작용한다.
- 3) 본문은 하나님이 십보라의 의지를 꺾으시는 내용이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 모세가 사명의 자리에 적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 과정의 한 단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초대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신 민 석 (시드니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PhD)

초대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누가 선택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졌는지 살펴보자. 먼저 신약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보자. 그 첫 번째 경우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였다. 전체 교회가 두 명을 선택했고, 여기서 최종 1인의 선택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비뽑기는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행 1:24-25).

두 번째 경우는, 구제 사역을 담당할 일곱 일꾼을 선택할 때이다. 이 일곱 명은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 모든 제자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다(행 6:3). 세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결정의 결정을 다른 교회에 전달할 때인데, 이때 사절단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그 결정은 사도, 장로, 그리고 온 성도에 의해서였다(행 15:22).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울 때 바나바와 함께 그들을 직접 택하고 임명했다(행 14:23). 그런데 그레데 섬의 각 성읍마다 장로를 세울 때에는 디도로 하여금 임명하도록 했다(딤후 1:5).

그렇다면, 감독(즉, 목사)의 경우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보자.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권면했다(딤후 3:6). 이 점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 제2조항에도 언급되는데,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곧바로 감독이나 장로가 될 수 없었다.

감독직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다. 230년경, 시리아 지방에서 기록된 『사도

들의 가르침』에서는 감독이 되는 나이를 최소 50세로 규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회의 규모가 작거나, 연령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나이가 젊더라도 자질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 임명이 허용되었다.

385년 로마의 감독 시리키우스가 타라고나의 히메리우스 감독에게 보낸 서신은 모태에서 성직자로 서약한 자는 감독으로 임직받기까지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결혼 전 세례를 받고 독경사 직무를 시작으로 30세까지 부-집사직을, 이후 5년간 집사직을, 그리고 10년간 장로직을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감독직에 오를 수 있었다. 각 직무에 부합하는 도덕적 삶이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단계를 따를 경우 감독 임명이 가능한 최소 연령은 45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2년 세르디카(Serdica) 회의 제13항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언급된다. 자산가, 법학자 또는 시 행정관이 감독으로 추천될 경우, 독경사, 집사, 장로직을 순차적으로 이수해야만 임명이 가능했다. 즉, 각 단계별 적합성 검증을 거친 후에야 최종적으로 감독직에 오를 수 있었다. 비록 사회적 덕망과 권위를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감독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독경사, 집사, 장로직의 단계별 과정을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했다.

이러한 단계별 직책은 감독직 수행을 위한 적합성 검증 과정이었다. 물론 평신도 신분으로 감독이 된 경우도 있었다. 3세기 중반 로마의 감독 파비안의 경우, 그가 평신도로 있었을 때 감독이 되었고, 4세기 말 어거스틴 역시 그가 평신도였을 때 장로가 되었다. 더 이른 경우로, 밀란의 감독 암브로스는 세례 입문자였을 때 감독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인 경우였으며, 초대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신중한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감독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며 임명되었는지 살펴보자.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임명이 되었다. 속 사도들(즉, 사도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감독을 임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베드로에 의해 직접 안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감독의 임명에 있어서 회중의 역할 역시 강조되었는데, 이 점은 『클레멘트 1서』 제44장에서 발견된다. 참고로 이 문헌은 로마의 감독 클레

멘트의 서신으로 신약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헌이다. 여기에 보면, 사도에 의해 감독으로 위임받은 자는 교회의 전체 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3세기 초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사도의 전통』 제2장에도, 목사는 모든 회중(아마도, 세례 교인)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야 하고, 임직식은 주일에 이루어지되 감독들은 안수하고 장로들은 침묵하면서 그 결에서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목사는 회중이 투표로 선출하고, 다른 목사들과 장도들이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독의 임명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의 중요성은 키프리아누스의 서신에서도 발견된다. 3세기 중반, 아프리카의 감독 안토니아누스에게 보낸 그의 서신에 따르면, 코르넬리우스가 로마의 감독으로 임명될 때 하나님의 선택, 모든 성직자의 증언, 평신도의 투표, 감독들의 합의와 인준으로 이루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또 다른 서신에서는, 감독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는 것과 심지어 합당하지 않은 감독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평신도의 손에 있다고까지 말한다.¹⁾

그러나 4세기에 접어들면서 감독의 임명 방법도 바뀌게 되는데, 교회 회중의 의견은 제외되었다. 이점은 4세기에 개최된 일부 교회 회의들의 결정에서 쉽게 발견된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보자. 314년 알레스 회의 제20항에서는, 정당성을 갖춘 감독으로 임명받기 위해서는 일곱 명의 감독에 의해서 임직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치 못할 환경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세 명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3명’이라는 숫자는 311년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세워진 카이킬리아누스 임명과 관련이 있다. 카이킬리아누스는 멘수리우스의 뒤를 이어 카르타고의 감독이 되었으며, 이때 주변 지역 감독 세 명에게 임직을 받았다. 그 중 한 명이었던 펠릭스는 대 박해(Great Persecution) 때 로마 군인들에게 성경을 넘겨줌으로써 배교한 자였다. 완전주의 지상교회를 추구했던 도나투스파는 이 일로 펠릭스를 정죄했었고, 결과적으로 카이킬리아누스의 성직 수여 역시 그 정당성은 잃게 되었다. 하지만 314년 알레스 회의에서, 도나투스파의 주장은 거부되었고 펠릭스를 포함한 세 명의 감독이 집전한 카이킬리아

1) Cyprian, Letters 67.3.2.

누스의 성직수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감독 임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3명의 원칙은 325년 제정된 니케아 공의회 제4항에서도 발견된다.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되는데, 첫째 추가로 감독을 임명할 때 동일한 지역에 있는 감독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최소한 세 명의 감독의 동석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세번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감독들의 서면 동의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감독직의 공석과 관련한 조항들도 있다. 326년 안디옥 회의 제16항에 보면, 자신의 교구가 없는 감독이 공석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감독이 되는 경우 그 지방 전체 감독들과 교회 회의의 승인 없이는 감독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314년의 앙키라 회의 제18항에서는, 한 감독이 다른 교구로 가서 그곳의 감독들에 대해 문제 일으키거나 소동을 피웠을 때, 그는 자신의 감독직에서 파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지역-한 감독’의 원칙을 볼 수 있고, 타 지역의 감독이 기존 감독에게 대항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세기 이후 감독 임직에 있어서 대도시 감독들의 권위는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 제6항을 들 수 있는데, “만일 누군가가 대도시(감독)의 승인 없이 감독이 되었다면, 그 같은 자는 감독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그러면서 독립된 대교구로 알렉산드리아, 로마, 안디옥 교회를 열거합니다. 제7항에서는 예루살렘 감독의 영예를 특별한 위치에 놓았다. 훗날 마틴 루터가 로마교황의 수위권을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속사도 시대 이후 감독 선출 과정에서 회중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회중의 선택 후에는 감독과 장로들의 승인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 이후 회중의 영향력은 축소된 반면, 지역 감독들의 권한은 크게 강화되었다. 통상 감독 임명에는 해당 지역 감독 일곱 명의 동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 명의 동석 필수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감독의 임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에는 대도시 감독들의 권한도 상당히 작용했다. 아울러 제

도적 절차 역시 엄격해져, 대부분의 경우 독경사, 부집사, 집사, 장로직 등의 성직 단계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이수해야만 감독직 임명이 가능했다.

카타콤과 기독교 신앙의 상징3

이 상 규 (발행인,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3. 카타콤의 상징들

1) 양과 목자 비둘기

양과 비둘기, 목자 등은 카타콤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이미지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의 것은 키르히 박물관(Museum Kircherianum)에 보관되어 있는데, 본래 에르메테(S. Ermete) 카타콤에서 발굴된 것이다. 그림을 보면 중앙에 선한 목자가 서 있고, 양 옆에는 두 마리의 양이 그려져 있다. 또 목자의 등에도 양 한 마리의 양이 있다. 우측의 올리브 나무 위에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다. 두 마리의 양은 두 사람의 영혼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이런 점은 카타콤에서 발견되는 다른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에 기록된 독특한 형태의 글씨이다. 예술적인 글씨 형태인데, 우리 시대의 캘리그래피라고 할까? 캘리그래피라는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의 칼로스(κάλλος)와 ‘쓰기’라는 의미의 그라페(γραφή)의 합성어인데, 3세기 당시에 이런 글씨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글씨가 후대의 관찰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존 버곤(John William Burgon, 1813-1888)에 의하면 이런 글씨체는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되어 버질(Virgil)의 글씨체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한다. 버곤은 영국성공회 고교회파 감독으로서 위대한 학자였고 1876년에는 치세스터 성당의 주임사제가 되었는데, 창세기의 모세저작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성경의 무오성을 강변했던 인물이자 카타콤의 미술품과 모자이크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한 학자였다. 필

자도 그의 연구에 큰 도움을 입고 있다. 그런데 버곤은 4세기경의 버질의 세필사본에 대해 말하면서 이중 한편의 글에는 버질의 초상화가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목자도 그려져 있는데 카타콤에서 발견된 선한 목자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 기록된 라틴어는 무슨 뜻일까? 다소 해독하기 어렵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ALEMERE DEUS REFRIGERET SPIRITUM TUUM UNA CUM SORORIS TUAE HILARE. “오 칼레메레여, 하나님께서 너의 자매 히라라의 영혼과 더불어 네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노라” (O Kalemere, may God refresh thy spirit, together with that of thy sister Hilara)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시련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에게 영혼의 안식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려져 있다.

선한 목자상은 카타콤 미술에서 가장 흔한 그림인데, 보통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맨 목자상, 혹은 목자 양편에 양이 그려진 그림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한 가지 예가 아래의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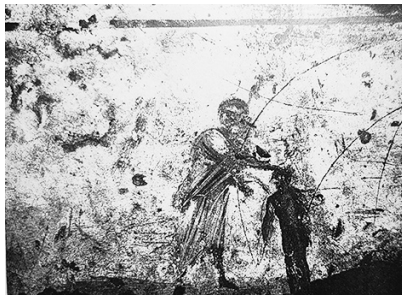


이 그림에도 두 마리의 비둘기와 목자 양편에 두 마리의 양이 그려져 있다.

카타콤에서 발굴된 것이지만 이 그림도 키르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2) 세례와 성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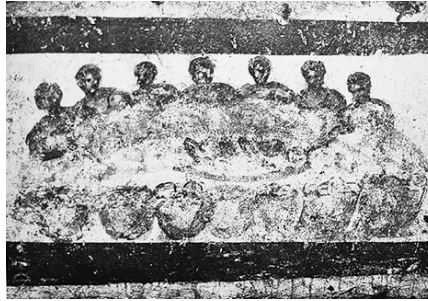
이번에는 로마의 카타콤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세례 및 성찬식에 대한 그림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의 두 그림은 200년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림1〉은 칼리투스 카타콤의 가장 오래된 A2실(Chamber A2) 무덤에 그려진 프레스토화이다. 수세대상자는 어린이(infans)로 보이고, 세례를 집례하는 이는 물 위에서 서 있다. 집례자의 팔 위에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다. 집례자는 수세자의 머리에 물을 붓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세례식 모습인데, 초기 교회 공동체가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세례의식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그림1〉 세례식

〈그림2〉는 성만찬 모습인데, 200년 전후, 늦어도 220년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데 A2실에서 멀지 않는 A5실 무덤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이다. 그림에는 일곱 사람의 남자들이 앉아 있고 그 앞쪽에는 일곱 광주리가 있다. 이는 요한복음 21장의 일곱 제자의 수와 동일하다. 그림中间的 떡과 물고기는 요한복음 6장이 보여주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한다. 카타콤에서 발견된 성만찬의 그림에는 통상적으로 일곱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 2〉는 이런 성만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 사람이 그려져 있는 성만찬 그림의 다른 한 가지 예가 〈그림3〉인데, 로마의 비아 살리아 노바(Via Salaria Nova)에 위치한 그릭 채플(Capella Greca)에 있는 이른바 ‘프락치오 파니스’ (Fractio Panis, 이를 그리스어로 $\kappa\lambda\acute{\alpha}\sigma\iota\varsigma\ \tau\omicron\upsilon\ \acute{\alpha}\rho\tau\omicron\upsilon$ 라고 한다)이다. 프락치오 파니스란 ‘떡을 찢음’이라고 번



〈그림2〉 성만찬

역할 수 있다. 이 그림에도 식탁에는 일곱 사람이 앉아 있는데 다 여성들이다. 긴 상의나 머리에 쓴 베일이나 위로 올려진 머리를 보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왼쪽 끝의 여성이 떡을 떼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스코화를 ‘프락치오 파니스’ 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성만찬 그림에는 일곱 사람이 그려져 있고 남녀가 구별되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점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다. 교황청은 6명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성이라고 말한다.



〈그림3〉 떡을 땀(Fractio Panis)

3) 구약 사건에 대한 상징들

구약과 카타콤: 카타콤 미술에서 구약이나 신약에 대한 그림이나 상징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하여 자신이나 집단이 믿는 바를 그림이나 조각, 유품, 혹은 낙서(graffiti)로 상징하거나 형상화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번에는 구약의 경우를 살펴보자. 구약의 내용에 대한 그림은 비교적 후기에 조성된 비아 라니타(via Latina) 카타콤에 많이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는 창조와 타락,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의 생애와 출애굽 사건, 다니엘의 믿음, 요나의 기적 등 구

약의 주요한 사건을 묘사했다. 이중 요나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많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인데, 요나의 일화는 기독교 예술 태동기부터 사랑받았던 주제였다고 한다. 콘스탄티누스1세 이전까지 요나가 표현된 곳이 100여 건이고 4세기 말까지는 약 2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¹⁾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사건을 묘사한 것은 앞으로 될 일을 예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또 한 가지, 모든 형태의 초기 기독교 예술에서 공통적인 것은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에 의한 이삭의 희생(창22:1-14)에 대한 그림인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그린 이의 상상력으로 성경 기사에 첨가된 것도 있다. 또 그림은 등잔이나 석관(石棺)에도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 온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림은 그 수효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비단 그림만이 아니라 석관이나 유리컵에도 그려져 있다. 특히, 두라-유로포스(Dura-Europos)에 가장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곳에는 인간의 타락과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고 한다.

다양한 그림을 다 소개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라티나 카타콤에 많이 등장하는 모세와 관련한 그림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굽에서의 모세의 생애에 대한 그림은 거의 없는데,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에서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의 <그림1>은 바로의 공주에 의한 모세의 구출(출 2:1-10) 그림이고, <그림2>는 홍해 도장 그림이다. 그림 중앙이 모세인데, 이적을 행하는 막대기를 들고 있고, 무장하지는 않았으나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모습의 히브리인들이다. 좌측은 물길에 휩싸인 에굽인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1> 바로의 공주에 의한 모세의 구출



<그림2> 모세와 홍해 도강

1) 남성현, 고대기독교예술사 (이담북스, 2011), 141,

4) 구약 사건에 대한 상징들2

카타콤 그림에서 사사시대나 열왕기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그림은 많지 않다. 심지어 다윗에 대한 것도 드물게 나타나는데, 도미틸라 카타콤에 오직 한 편, 곧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있는 한 가지 그림만 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의 승천은 중요한 주제일 수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직 두 편만 있는데 하나는 도미틸라 카타콤에, 다른 하나는 라티나 카타콤에 있다. 두 그림에서 마차를 탄 엘리야가 힘차게 출발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고, 왼편에는 엘리사가 겹옷을 받는 모습이, 오른쪽에는 이를 구경하는 모습이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다(그림1).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그림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제임스 스티븐슨(James Stevenson)은 히폴리투스의 영향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히폴리투스(Hippolytus, ?-235)는 3세기 초에 다니엘서 주석을 썼는데, 이 책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극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다니엘과 관련하여 4가지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첫째는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단3장), 둘째, 풀무불에 던져진 일, 셋째, 사자굴에 던져진 일, 넷째, 수산궁에서의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실은 3세기 당시 그리스도인이 겪었던 박해와 수난의 현실, 곧 산체로 불태워 죽게 하던가,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잡혀 죽게 하던가, 여성의 경우 성적 노리개가 되게 하는 당시 현실과 매우 유사했기에 상당한 자극과 도전, 그리고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다니엘과 동료 세 청년이 우상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은 카타콤의 그림(그림2)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등불이나 석판에도 자주 등장한다. 오리겐은 325년경에 쓴 '순교에 대한 권



〈그림1〉 엘리사의 승천, 라티나 카타콤

면' (Exhortation to Martyrdom)에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 곧 막시미누스 황제(235-8) 치하에 고통당했던 암브로스 등과 같은 이들을 느브갓네살의 위협 하에서 고통당했던 이들과 대비하여 언급한 바 있고, 카타콤 미술이 변창했던 4세기 중엽 로마의 감독 리베리우스(Liberius)는 다니엘과 그 동료들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례로 인용한 바 있다.



(그림2) 다니엘과 세 친구들. 상단에 그리올 그린 Bosio의 사인이 있다.

5) 신약 기사에 대한 상징들

앞에서 구약의 내용을 그린 프레스코화에 대해 소개했는데, 카타콤에는 신약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 또한 적지 않다. 같은 그림이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으나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한 그림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성경을 어떻게 인식했던가를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하다. 예수님 탄생기에 별과 동방박사들에 대한 그림, 목자들의 경배와 구유에 누인 아기 등이 묘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마리아는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이 바친 예물은 세 가지였기에 흔히 동방박사는 세 사람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림에서는 꼭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혹은 네 사람으로 그려진 곳도 있다. 그림에서 동방박사의 수는 그림 그리는 공간이나 여백에 따라 다르게 묘사된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현존하는 카타콤 미술에서 4번 묘사되고 있다.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세례론’ (On Baptism)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38년 된 중풍병자의 치

유(요5:2-9)와 엘리사의 물을 정결케 한 사건(왕하2:18-22)를 세례의 형태로 기술하고 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는 항상 비둘기가 등장한다. 그리고 세례 장면은 성찬 장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점은 아주 자연스런 일인데, 세례받은 이는 유스티누스(Justin)나 히폴리투스(Hippolytus)의 글에서 보여주듯이 세례직 후 바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세례와 성찬은 실로 한 의식의 두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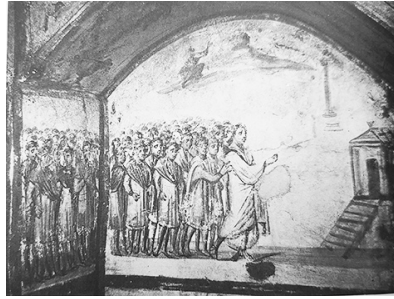
세례 장면은 어부와도 관련되어 있다. 제자들은 ‘사람 잡은 어부’ (마4:9, 막1:17)로 묘사되어 있고, 어부는 카타콤 미술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James Stevenson, 90쪽). 그래서일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유명한 찬송 중에, “예수는 구원받는 사람을 잡는 어부” 라는 글귀가 있다.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에 대한 그림도 있는데, 자연에 대한 이적, 예컨대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그런 그림은 전혀 없으나, 치유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예컨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요11)은 카타콤 미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는데, 윌페르크(G. Wilpert)는 53가지 사례를 제시한 바 있고 그가 책을 쓴 이후(1903)에 더 많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아마도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가장 현저한 사례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유사한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한 경우가 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마9:18-26, 막5:21-4, 35-43, 눅8:41-2, 49-56)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눅 7:11-16)을 살리신 이적에 대한 그림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에 대한 그림도 여러 형태인데, 여기서는 라티나 카타콤에서 발견된 그림을 소



(그림1, 금잔에 그려진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림2, 나사로를 살리심)

개한다. 아래 그림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군중)을 묘사하기 어려운데 이를 잘 극복하고 있고, 위 천정에는 구름과 기둥이 그려져 있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는 모습이라고 제임스 스티븐슨은 해설하고 있다.

6) 죽은 자를 기억함

카타콤 미술의 형태는 다양한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외에도 여러 이적과 기사를 표현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기적이나 5천 명을 먹이신 일도 카타콤 미술의 중요한 주제였다. 윌페르트에 의하면 누룩의 비유 같은 기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38건 발견되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일은 굶주린 이들에 대한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즉각적인 만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요6:53)라는 상징이었다. 이 상징의 더 높은 단계가 성만찬이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즙을 자신의 살과 피와 동일시했다. 그래서 성만찬은 카타콤 미술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주제가 된 것이다. 이 중 유명한 그림이 앞에서 소개한 바 있지만 프리스길라 카타콤에서 발견된 ‘프라치오 파니스’ (Fractio panis), 곧 ‘떡을 땀’ 이라고 부르는 그림이다. 성만찬에 대해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성 칼리스트투스 카타콤의 성만찬 관(chapels of the Sacraments)일 것이다. 그 인근에 만찬 예식에 대한 그림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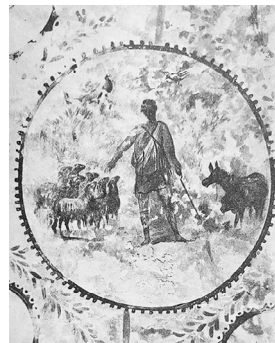
죽은 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추모나 장례식이 망자의 무덤에서 행해졌는데, 이는 고대사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했다. 특히 순교자의 무덤에서 순교자를 기념하고 추모하는 일은 더욱 그러

했다. 이와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는데, 한 가지 경우가 아피아 가도(街道)의 카타쿰바스(ad Catacumbas)라는 곳에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낙서가 그려져 있다<그림1>. 이런 글씨를 ‘그래피티 graffiti’ 라고 말하는데, ‘굵다, 혹은 굵어서 새기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 ‘sgraffito’ 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래피티란 뾰족한 기구로 글자를 세기거나 분무기(스프레이)로 그려진 문자나 그림을 뜻하는데, 고대사회에서는 간단한 스크래치 표현에서부터 정교한 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그림 1>에 새겨진 글씨는 PAUL ED(T) PETRE PETITE PRO VICTORE 인데, ‘바울과 베드로는 빅토레를 위해 기도한다’ (Paul and Peter pray for Victor)는 내용이다. 이런 것 외에도 카펠라 그레카(Cappella Greca)에서는 돌 의자(stone bench)가 발견되었는데, 장례식 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카타쿰에서 발견된 가장 빈번한 그리고 가장 현저한 그림은 선한 목사에 대한 그림이다<그림2>. 이 그림은 모든 카타쿰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목자라는 개념은 구약의 시편과 선지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시23, 78, 80, 100,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등)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이미지는 요한복음에 강하게 나타나 있고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타난다. 또 목사로서의 그리스도 상은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폴리감의 순교기에도, 그리고 1세기 중엽에서 2세기 어간의 로마에서 기록된 헤르마스(Herma)의 예언서적인 기록인 목자(The Shepherd)라는 책 제목도 있다. 이런 상황이었음으로 ‘선한 목자’ 그림이나 상징은 카타쿰 미술의 가장 빈번한 주제가 된 것이다.



<그림1>



<그림2> 선한 목자

경건을 위해 날마다 훈련하라!

박 관 수 (거제도 구영교회 담임목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경건에 대해서, 다른 말로 신앙성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 이후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배의 태도가 있어 훌륭한 신앙인 것 같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는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엡 2:8)라는 말씀 그대로이다.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나 행위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조건없는 선택과 십자가에서 보이신 은혜로운 사랑의 구속 덕분이다. 본질상 죄인인 인간 자신에게서 의로움이 나올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구원 이후 신앙의 성장과정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는 신앙성장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 구원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미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 2:12)고 명령하신다. 과거적 의미에서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현재적 측면에서 구원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미래적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완전한 영화(Glorification)의 그 날까지 구원은 날마다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 이 달리기에는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 땀 흘리며 해야 한다. 그렇게 성도들이 쉼 없이 구원의 상을 향

하여 달리는 성화(Sanctification)의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전 단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후 4:8)고 말했다. 육체를 연단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영적인 연단을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연단을 위한 훈련 역시 필수불가결하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γυμνασία(궂나시아 gymnasia)이다. 이 단어에서 ‘체육관’을 뜻하는 ‘궂나지움’(Gymnasium)이 나왔다.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 매일 엄청난 양의 땀을 흘린다. 그와 같이 영적인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운동선수들처럼 땀 흘리면서 매일 영적인 훈련에 힘쓰는 것이 당연하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강건함을 추구하면서 ‘수고’(κοπιάω, 코피아오 kopiao)를 한다고 고백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딤후 4:10). 또한 이 목적을 위해서 ‘전심전력’(μελετάω, 멜레타오 meletao)해야 한다고 말한다(딤후 4:15).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의 목적과 바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딤후 4:10). 인간적인 공로나 자신을 향한 신뢰, 자기 자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땀방울이기에, 이것은 공로사상이 아니고, 인본주의적 발상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기에, 성화를 위한 분투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렇게 영적성장을 위해 땀흘리는 경주를 해 나가려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토마스 아 켐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적 진보는 목적인 만큼 이루어진다. 진보를 이

루려면 아주 근면해야 한다.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수고보다 더 큰 전투가 있겠는가? 우리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경건을 위해 투자하고 진력하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육체단련이나 다이어트나 미용이나 돈 벌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이 더 강하고 지속적인 모습이다. 윌리암 로도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에서 이렇게 탄식했다. “놀랍게도 인간들은 세상의 일을 뜻하고 바랄 때에는 자신의 재능과 지성과 시간과 공부와 적용과 실습을 열심히 쏟아 붓고 온갖 도움과 지원까지 청한다. 하지만 경건을 가꾸고 심화시키는 데에는 한없이 더디고 소홀하고 몽매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지성과 능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8세기에 윌리암 로가 탄식한 그대로 경건 훈련을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심히 무심하거나 나태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불신자들의 노력, 그리고 다른 종교 신자들의 열심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은 현재 받은 구원의 방 안에 앉아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 우려가 된다. 구원은 파놓은 당상이라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성경의 명령은 도외시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비슷한 종류의 세속적 추구에만 열을 올리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존 스토티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단순히 성령의 지배에 피동적으로 복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인도 안에서 능동적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열매맺는 삶을 기대하신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 그런데 성도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매를 얻기 위해 논밭에서 수고하는 농부들처럼 부지런하게 헌신할 때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도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말한다.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반적 방법이다....하지만 이

러한 습관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몸에 익히기 어렵다. 거룩한 습관이란 자기 절제와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결코 자연적인 결과물이 아니다”.

혹시 구원받고 나서 성화를 위한 아무 노력도, 절제도, 희생도 안 하고 제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성도라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도 가다듬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리걸음하라고 신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다. 죄용서받은 감사기도만 드리라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지에 이르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내가 받은 구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한 목표의식을 품고, 날마다 경건을 위한 훈련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방에서 불어올 바람, 사방으로 흩어질 엘람(이란)

최 요 셉 선교사 (GMS, Last-Call, T국 갑바도기아 이란인교회 담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아에게 임한 엘람인들에 대한 예언(렘 49:35~36)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यो.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활 쏘는데 탁월하고 박식했던 엘람인들은 기원전 640년 앗수르의 왕 아슈르바니팔에게 정복당해 앗수르 제국의 노예가 되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2세의 도움으로 앗수르로부터 해방된 엘람의 자손들은 수도 수산성을 페르시아에 넘기고 속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되게 된다. 이란의 제2도시 쉬라즈의 북부에 위치한 페르세 폴리스에 가면 엘람을 해방시킨 왕 고레스의 무덤이 있다.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은 엘람인들은 현 이란 서부 ‘수산’ 지역에 편입되어 이란의 주 종족 중 하나가 되었으나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엘람인들 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 이란인들도 정교유착으로 인한 종교적 핍박과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지는 질고를 겪게 된다. 1979년 2월 이란의 정치와 종교(이슬람)가 하나된 후, 이슬람의 박해를 견디지 못한 현 시대 이란인들도 그들이 가진 재산, 집, 그리고 땅을 모두 팔아 ‘금’으로 바꾸었고 호르무즈 해협에 띄운 뗏목에 가족들을 태우고 페르시아만을 건너 탈출하였다. 두바이, 오만,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에 있는 ‘골든 썬’(금시장)을 세운 이들이 이슬람 혁명을 피해 이란을 탈출한 종교난민이었다는 것이 안스럽지 않은가. 202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란을 떠난 이란인 디아스포라 인구가 800 만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NASA와 TESLA 그리고 Google 등에 근무하는 직원 절반이 이란인들이고, 미국의 수준급 의사들 절반 또한 이란인들이라는 농을 진담으로 여긴다 한다.

[박해]

2003년 이란 북서부 ‘우르미예’ 시에서 열린 ‘제5회 세계평화대회’ 에 이슬람 여성 지도자들과 한국의 기독교 여성 사역자 600여명이 모였다. 대회를 마친 후,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활동해오던 기독교 선교사들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다수 철수하게 되었다. 2009년 한국의 한 선교단체의 과격한 전도 방식으로 인해 남아있던 한국인 선교사들도 대부분 추방받게 되었다. 52년전 테헤란에 설립된 한인교회도 얼마전 퇴거 명령을 받고 문을 닫게 되었다.

테헤란 북부에 ‘에빈’ 이라는 감옥이 있다. 정치-종교적 이유로 투옥된 죄수(?)가 1만5천이 넘는다. 필자가 살던 아파트가 에빈 감옥 위쪽에 있어서 감옥 전경 전체를 볼 수 있었다. 높은 담벼락이 동그랗게 둘러 싸고 있는 왕릉처럼 생겼다. 1.5만이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몇개 보이지 않는다. 투옥된 죄수들이 탈옥할 수 없도록 왕릉 형태의 지하 감옥을 만들고 반체제 인사, 기독교인들을 가둔 것이다. 2022년 10월, 원인 불명의 화재가 일어나 반정부 시위와 종교적 이유로 투옥된 백여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나 이란 TV, 라디오, 신문 그 어디에도 기사가 나지 않았다.

[기적]

복음은, 전하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자라고 열매 맺는 유기체이다. 우리는 이란에 9년 을 살았다. 9년동안 못 본 것 한 가지와 본 것 한 가지가 있었다. 매 주 십자가 달린 교회 지붕 아래 모여 예배드리러는 교회를 단 한 곳도 보지 못했다. 본 것 한 가지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태풍과도 같은 부흥의 불길이었다.

현재 이란에는 개신교 선교사가 없다. 외국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한인교회 마저 폐쇄 시킨 곳이다. 선교단체도 없다. 성경을 파는 서점도 없다. 2005년 10~20만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을거라 추정했다. 2012년

엔 100만이 넘는 것이라 추정했다. 그리고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 Mou 가 맺어진 지금 2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이란에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없고 십자가 달린 교회도 없는 이곳 이란 땅에 20만이었던 개신교인 숫자가 20년 만에 10배가 불어 200만이 넘는 다니 이것이 진정한 ‘기적’ 이 아니겠는가! 부흥의 핵심이 되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0%가 넘는 독보적 성장률을 보여주어 현재 9천만 이란 인구 중 신분을 숨기고 지하 교회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신자 수가 200만이 넘는 것이라는 기적의 나라가 바로 ‘이란’ 이다.

[종전]

테헤란 대로변의 거대한 광고판들에는 미국 국기에 퍼붓는 포탄을 담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1979년 2월 1일, 팔레비를 축출하고 호메이니를 테헤란 공항에서 맞이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사탄의 꼬봉 자리에 세웠던 이란인들이 55년이 지난 2026년 2월 1일 거리로 펼쳐나와 ‘ایزرب اجنای رب عیار’ ‘평화여 쏟아져라, 이곳에~’ 라고 외쳤다. 최소 3만이 넘는 시민들이 IRGC(이란혁명수비대)의 총탄에 쓰러졌다. 이슬람에 자유를 팔아버린 종교적 열망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온 세계인들이 지켜보았다. 2월28일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추적 폭격에 허메네이와 가족들은 이란 최고의 순교자가 되었다. 20~30%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강경 이슬람의 철권 독재 체제는 더욱 강경해졌다. IRGC는 반이슬람-반정부 시위대에 합세하는 자들은 추적 체포가 아니라 시위현장에서 즉결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눌렀던 트럼프는 이번 전쟁이 2~3일 내 단기전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늘 예상치 못한 언사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트럼프의 속내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5개월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 자유를 향한 이란인들의 절규는 혁명수비대의 총부리 앞에 완전히 무너진 것 처럼 보인다.

60일 후 종전 Mou 기한이 끝나고 종전합의서가 발효되면 총부리를 두려

워하지 않는 시위대가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믿는다.

[사방으로 흩어질 엘람-부흥]

이란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분은 하나님이셨다. 물을 주고 양육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혁명수비대의 총부리로 십자가의 능력을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이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 복음의 열정이 되어 온 세계로 흩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9200만 이란인의 40%가 20~30대 젊은이들이다. 종전되면 살해 위협을 받게 될 많은 청년 개신교인들이 튀르키예 국경을 넘어 종교 난민으로 피난 길에 오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아에게 임했던 예언, 활 잘 쏘는 엘람인들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 했던 그 예언이, 복음의 화살로 무장한 이란인들이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믿는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 한 분이 전쟁 포화에 간혀 있는 이란인 난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1천만원을 현금했다. 이란에 있는 30여명의 이란인 성도들과 지인들에게 1인당 200 달러씩 전달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망과 6년 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기근이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IRGC의 위협과 기근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부터 지켜주시고 강경 이슬람 정부가 무너지고 참 자유가 이란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를 요청한다.

전 「매경닷컴」 운영걸 대표

대담 신 재 철 (부산 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운영걸 대표(1957-)는 전 「매경닷컴」 대표로 「매일경제신문」과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제·시사 전문 언론인이다. 1983년 9월 「매일경제」 신문 기자로 입사해 20년 이상 경제 현장을 취재했다. 「매일경제」에서 증권부장, 부동산부장, 유통경제부장, 여론독자부장, 중소기업부장 등을 거치며 데스크를 맡았다. 이후 주간국 「매경이코노미」 국장, 「매경닷컴」 대표, 매경출판 대표 등을 역임했다. 「매경닷컴」에서는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해 매경미디어그룹 인터넷 사업을 총괄했다. 「매경이코노미」에 ‘운영걸 칼럼’을 연재했고, MBN 등 경제·시사 채널에도 출연해 자신의 견해를 밝혀왔다. 재테크·투자 관련 공저로 『증권투자 알고 합시다』, 『코스닥 투자 알고 합시다』 등이 있다. 은퇴·인생 2막 등을 다룬 책과 재무 관련 서적도 집필하여 출판했다.

매경출판 대표를 지낸 뒤,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시사·정치 평론 패널로 활동 중이다. 과천교회에 출석하는 윤 집사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도 실현되기를 기도한 후 방송 출연에 임하고 있다.

신재철 교수: 윤 대표님의 신앙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시면 합니다.

운영걸 대표: 저는 결혼 전에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과 따라 교회에 몇 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저를 제외한 본가 가족들은 모두 성당을 다니게 되었지요. 부모님이 성당을 택한 이유는 아마 제사를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 아닌가 싶네요. 가장장적 유교 교육을 받았던 아버지는 조상 제사에 대한 소신(?)이 대단했으니까요.

1986년 1월 결혼하고 아내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할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아내는 어릴 때부터 동네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10남매의 막내로 신경이 몹시 예민하고 병치레가 잦았던 아내는 교회에 다녀오면 마음의 평화를 얻곤 했지요. 1992년쯤인가 아내에게 갑자기 몸에 마비되는 증상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지만, 증상이 점차 심해지고 응급실에서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으나 짐작일 뿐이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몰라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찾아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면역결핍증의 일종인 ‘길레인-바레 증후군’이라는 확진을 받고 마침내 치료다운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육 마비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신체 마비 증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오랫동안 재활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친절은 멀리 경북 영일군이었고, 시댁은 대전이니 양가 부모의 손길조차 빌릴 수 없었지요. 우선 아이 둘을 건사하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지요. 이때 간호사 출신 이웃을 우연히 소개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천사처럼 치료를 도와주고, 아이를 돌보아 주었지요. 이분이 독실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신도여서 자연스럽게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 지금까지 매일 새벽예배에도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아내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신앙의 성장을 맛보고 있습니다.

성경필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구약성경 필사를 마쳤고, 올해는 신약성경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철 교수: 경제전문가가 볼때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빈국(貧國)에서 세계의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 성장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윤영걸 대표: 저는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가까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해방 후 러시아와 중국을 선택한 북한과 미국을 택한 남한이 엄청나게 국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까요? 미국은 우리에게 경제와 안보를 지원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수혈해 주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일 겁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6.25 직전에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토지개혁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요. “구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8)”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지요. 폐쇄적이고 정체된 은둔의 나라인 한국은 기독교 신앙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실용주의와 개혁 정신이 넘치는 역동적인 사회로 변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단점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런 중에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걸출한 지도자와 세계 최고의 교육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기독교 신앙이 삼위일체가 되어 오늘날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36년간 식민 통치했던 일본은 식민지 사관을 들이댁니다. 우리는 민족사관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요. 1884년 알렌 선교사 입국 이후 급속도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선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주님께 이끌었습니다. 3.1운동의 33명 지도자 가운데 기독교 신자 지도자가 16명이란 점도 놀랐습니다. 일본이 아니었어도 기독교 신앙을 잘 수용한 우리 민족이 부국으로 가는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의 경제 성장과 현재의 부국 됨은 하나님의 은총이 컸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신재철 교수: 요즈음은 금요일마다 MBN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시지요? 오늘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걸 대표: 1983년 「매일경제신문」 공채 기자로 입사한 이후 43년째 언론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방송 패널을 한 지는 11년째가 됩니다. 근자에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까지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정치만큼 변화무쌍한 나라가 없지요.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가 갑자기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무려 12개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권좌에 오르는 예측불허의 정치 지형이지요.

민주주의는 유리그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으니깐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인데, 사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위기의 징조이지요. 정치인의 탐욕과 유권자의 무관심, 그리고 맹목적 지지가 언제나 민주주

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가 지역, 계층, 세대, 남녀 등 진영별로 뿔뿔이 흩어져 반목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지음)라는 책을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것과 더불어 정치 지형의 양극화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는 패널로서 “명료하고 쉽게 의견을 피력하고” “할 말은 다 전한다.”는 정신으로 일하고 있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신재철 교수: 지역과 진영, 이념 논리에 빠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도를 가지고 정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윤영걸 대표: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 가려면 먼저 지도자가 바뀌어야지요. 정치인들이 지역, 이념 등으로 진영 간 대결을 부추깁니다. 그래야 강성 지지층을 자기 편에 붙잡아 둘 수 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나 이라크 파병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지지자들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결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누가 뽑습니까? 바로 유권자이지요. 그러니 정치인 탓만 할 게 아니지요. 아무리 뇌물을 받고 성추행 전과가 있는 사악한 정치인들이라도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몰표를 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권자가 바로 서야 정치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재철 교수: 이 나라에 기독교 정치인이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도 상당하다고 압니다. 이들이 비기독교 정치인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윤영걸 대표: 기독교 정치인들이 비기독교 정치인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에서는 회의가 듭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은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뛰어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표가 우선인 직업이지요. 그러다 보니 차기 공천

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곤 하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도 있겠습니다만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 정치인이 대다수 같습니다. 무엇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느냐가 기독교 정치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정치인은 자신이 가진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정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실현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신재철 교수: 평생을 언론계에서 일하셨는데, 기독교 언론의 방향에 관해서도 한 말씀 주시면 합니다. 아울러 기독교 정당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회의 정치참여에 관한 견해도 들려주시면 합니다.

윤영걸 대표: 사회가 혼란할 때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게 교회와 기독교 언론과 정당의 사명이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처럼 어두운 세상의 등불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일부 기독교 언론이 특정 정파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할 겁니다. 미국처럼 언론사가 특정 정파를 지지하고, 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겉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이지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으니, 목사나 교회가 정치적 견해를 갖고 목소리를 내는 건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종교가 정권의 혜택을 받으면 사회를 감시하고 위정자를 비판하고 바로 잡는 예언자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지요. 나아가 신자들의 표와 영향력으로 정권을 돕는 건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붕괴시키지요. 정교 유착은 교회, 정권, 사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교분리라는 말은 교회는 정치에 무관심 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권력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교회는 권력과 결탁하지 말라는 의미일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마주한 위기는 정교분리의 본질을 잊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정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정당은 예수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지 증오와 불신, 갈등을 촉발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사회의 독소일 뿐입니다. 요즘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지나치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지난해 특검이 일부 교회 시설과 지도층 종교인에 대해, 마치 범죄자 대하듯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벌인 것은 분명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현실의 법을 넘어서 치외법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만, 수사권이 남용되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종교탄압이라고 봐야겠지요. 아울러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목사에 대해 구속까지 한 것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인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재철 교수: 2026년 6.3 지방 선거 시 초유의 부실 선거 사태가 생겼습니다. 대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데 교수들이 잠잠합니다. 이 사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영걸 대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국민은 올해 6월 3일 지방 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를 지켜보고는 “이러다가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지켜온 이 나라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예 몸이 떨었을 겁니다. 투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행사하는 소중한 절차인데 이게 엉망진창이 되었으니, 민주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대형 재난 사고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서울 42곳을 포함해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전남, 경남 등 전국 10개 시도, 91곳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 추가로 투표지를 보충해 사용했고, 서울 송파구 잠실 등 26곳에선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개표가 시작된 뒤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할 텐데 감시 무풍지대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독립성을 방패 삼아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고,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얽혀 지금까지 선관위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대학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6.3 지방 선거 송파구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 앞에선 ‘부정 선거’의 증거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참정권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지요.

그러나 교수 사회에서는 눈에 띄게 집단행동을 하거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과거 4.19혁명이나 중요 시국 사건에서는 교수들이 먼저 의견을 발표하고 행동에 옮긴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가 끓는 행동 중심의 대학생과 분석과 연구 중심에 있는 교수들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지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담과 신중함도 원인 중 하나 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의 ‘어른’ 이 줄어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우려스러운 사태이지만, 공연히 나섰다가 자칫 불이익을 당할까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고만 있는 것 아닐까요. 교수 사회조차 진영논리로 갈라섰으니, 어떤 누구도 감히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요. 침묵은 비겁함의 또 다른 이름 아닐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 대기표를 받고도 결국은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는 등 참정권 침해가 확인된 만큼, 지성인들의 집단인 교수들 역시 단순한 침묵이 아닌 날카로운 감시와 제도 개선 요구로 젊은 청년들의 스승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재철 교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었으나 윤리의식은 저하되었고, 정치, 교육 종교계 등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 봅니다. 언론이 중심을 잡고 선도하면 좋겠는데 기대에 못 미칩니다. 대표님께서 보시는 언론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걸 대표: 흔히 언론을 일컬어 사회의 ‘소금’ 이라고 하지요.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아준다는 이유이지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라고 말을 한 이유는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이 없으면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은 정말 심각합니다. 싫든 좋든 언론을 매일 접하는 국민이 울화통을 터뜨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현재 한국 언론이 처한 환경은 첫째, 유력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한 레거시 미디어(기성 매체)의 영향력이 추락하는 대신 그 자리를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뉴미디어가 급속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불편부당(不偏不黨)’ 한 보도를 통해 정의 실현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특정 정치 성

향의 소비층을 겨냥해 입맛에 맞는 뉴스만 생산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유튜브와 포털 뉴스 알고리즘은 이를 부추겨, 국민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지요.

안타깝게도 지역, 사회계층, 이념, 세대, 남녀 등으로 갈라진 한국 사회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와 상업적 확증편향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지요.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언론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반대 진영의 언론은 극단적으로 불신하는 ‘진영 논리’ 속에 언론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한국의 신문사들은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고, 방송은 권력의 인 허가권이라는 통제 수단에 코가 꺾여 보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환경 탓만 하는 언론인은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 사회의 중심추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보다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언론인 스스로의 성찰과 용기가 시급합니다. 정파를 넘어선 공정성과 균형 감각은 언론인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언론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재철 교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남기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까요?

윤영걸 대표: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한말에는 굶주림과 병마에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과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3.1운동 등 독립운동과 신사참배 거부에 앞장섰습니다. 6.25 전쟁 때는 공산당에 맞섰지요. 개발 시대에는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등 기독교 정신이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물론 권력에 아부하고 빌붙고, 때론 침묵하는 종교인도 있었지요. 정교분리가 권력의 횡포에 침묵한 자들이 핏계 달 때 쓰는 말이 돼선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느라 주위를 둘러서 볼 여유가 없었지요. 교회 내부 갈등이 심각해졌고 특히 교회 세습 또한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입니다. 원인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파리를 틀고 있는 탐욕과 교만

이라고 봅니다. 교회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고난의 시대에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인 전도와 선교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성직자는 평신도의 복음이다.”란 말이 회자가 되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를 잘 새겼으면 하는 마음 솔직하게 가져 봅니다. 그래야 저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신자도 배우고 따라갈 수가 있겠지요.

신간을 소개합니다.

여주봉, 『오이코스를 통한 복음전도의 활성화』, 도서출판 새물결, 2026. 8. 330pp.

‘신 이교(異敎)사회에서의 복음전도, 초대교회로부터 배우다’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복음전도라고 주장하면 ‘초기 기독교회’의 경우를 역사적 사례로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연구하는 목회자로 알려진 저자는 현대의 대표적인 신학자 혹은 복음 변증가들인 톰 라이트, 팀 켈러, 마이클 고헌, 리차드 미들턴 등의 등의 저작과 초기 기독교와 관련된 저명한 연구가들인 헨리 차드윅, 알란 클라이더, 래리 허타도, 로드니 스타크 등의 저적을 섭렵하고 자신의 목회 경험과 이론에 근거하여 관계전도, 삶을 통한 전도를 제시한다. 서구사회의 전철을 따라 신 이교사회로 접어든 오늘의 현실에서 오이코스(가정, 교회) 전도, 그리고 전도의 일상화를 제시한다.

최혜영, 『로마 전통 종교와 그리스도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6. 7. 518pp.

‘고대로마 종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서양고대사를 전공한 저자의 최신 저술로서 기독교회가 생성될 당시의 종교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황제 율리아누스 2세에 대한 연구로 그리스 이와니나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득한 저자는 종교 혹은 종교적 요소는 로마사회의 기층 혹은 기저 개념으로서 종교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와 결합된 핵심 요소였다고 말하면서 로마 사회에서의 종교, 종교의 기능과 형태, 그리고 각종 종교의 얼굴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고 박해에 직면했던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기독교와 헬라 로마문화와의 조우, 기독교 안에 스며든 로마 전통 종교의 유산들을 언급하지만, 로마의 전통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역사」 속간 3호(2026. 8-9)

발행일 : 2026년 8월 10일

발행 및 편집인 : 이상규

발행처 : 한국교회와 역사 연구소

부산시 영도구 중리로 32, 107-301호

010-8520-8011

* 필자의 글은 본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신청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Korean Church and History

vol. 3 (August–September)

Editor's Note / Sang Gyoo Lee

Reading NT Text

Are the recipients of the First epistle of John, churches or individuals?

/ Jo Gyu Tong, ThD Cand.

Reading OT Text

What is the meaning of the word 'vanity' in Ecclesiastes?

/ Woo Taek Park, Th D.

Text and Interpretation

On the meaning of 'bridegroom of blood' / Sang Keun Seo, PhD.

A Walk Through Early Christianity

How were leaders in the Early church appointed? / Min Seok Shin, PhD.

History and Faith3

Catacombs and Christian Symbols 3 / Sang Gyoo Lee, ThD.

Toward a Holy Life

Train everyday for your Piety / Koan Su Park, DMin.

At the Crossroads of a Changing World

"I will scatter Elam to all these winds" / Joseph Choi, M.Div.

Men and Thoughts

Journalist Yoon Young-geul, CEO / Jae Chul Shin, PhD.